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 45:15)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분 자신을 숨기시는 분으로는 아는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사 45:15). 이사야는 상상한 결과로 공허한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말은 축적된 많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여러 사실들을 살펴보고 연구한 다음에,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것을 지켜보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체험들을 주목해 보았다. 이 모든 것을 본 결과 그 선지자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우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하시는 자가 누구이신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외쳤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이다. 그분은 숨기를 좋아하시지만 우리는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그분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과시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큰 시련과 시험이 된다.

엘리아는 ‘우리과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이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분명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분명한 임재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엘리아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낙담하여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왕상 19:14)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엘리아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고, 엘리아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깨닫지 못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이것을 깨닫도록 어떤 것을 보여 주셨다.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 엘리아는 ‘주님께서 이 안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람 안에 계시지 않으셨다. 바람에 이어 ‘지진’이 따랐다. 엘리아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안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지진 안에도 계시지 않으셨다. 이어서 ‘불’이 있게 되자 엘리아는 ‘주님은 소멸하시지는 불이시니까 그 가운데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으셨다.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주님은 그 안에 계셨다! 엘리아는 그분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아주 부드럽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명이 있단다. 엘리아야, 나는 내 자신을 숨긴단다. 너는 내가 그 칠천 명을 보존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아는 눈에 볼 수 있는 것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으셨고 매우 작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안에 계신다.

소리 안에 계셨다. 그분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명을 그분 자신을 위해 보존하셨지만, 그분의 행동은 그와 같이 감추어져 있었고 선지자인 엘리아조차도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단지 큰 영향력과 위대한 이상과 놀라운 계시만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존재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자주 미세한 속삭임이나 작은 감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 미세하여 우리 자신의 느낌과 구별할 수조차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때때로 우리 깊은 속에서부터 다 음과 같이 무엇인가를 어렵곳이 제안하는 것(이것을 느낌, 음성, 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이 있다. ‘이것은 너의 천연적인 생명이다. 이것은 십자가로 가야 한다.’ 이러한 말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의 정의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말이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이다. 이러한 신성한 활동이 교회를 지켜 왔다. 우리가 주

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그분 안에 더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매우 조용하신 분임을, 너무나 조용해서 계신지조차 알기 어려운 분임을 더 깨닫게 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가장 친밀한 방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았고,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조용하고 내적인 활동에 의해 가장 위대한 인도를 받는다. 베드로는 그의 첫 서신을 쓸 때쯤 상당히 많은 체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벧전 1:8)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한번도 본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에 이어서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벧전 1:8)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한 분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자신을 너무나 잘 감추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의 활동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은 내적으로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사업, 모든 환경 등에서 외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많은 환경들을 만드시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신다. 심지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다만 저절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삶의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황은 모두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

교회 역사에서 더 많이 드러난 업적일수록 신성한 내용은 더 적은 것이 대부분 사실이다. 또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업적일수록 그 신성한 내용은 더 큰 것도 대부분 사실이다. 어떤 큰 환상이나 체험을 기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내적인 그분의 음성, 자신의 느낌처럼 느껴지고 좀처럼 음성이라고 인식조차 되지 않는 고요한 음성에 반응함으로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존재에 새겨진 그 음성에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끊임 없이 비밀스럽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무엇만 내 전집, 1969년 2권, 한국복음서원]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출판사협의회(ECPA)의 정회원인 LSM에서 출간한 서적들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습니다. www.kgbr.co.kr / www.LSM.org
연락처: 213-599-7507 이메일: DeeperTruth12@gmail.com